

2015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의 생활

메시지 9
그리스도께서 왕국 백성을 보살피심의 구중 축복에서 계시된
왕국 백성의 내적 존재

성경: 마 5:1-12

- I.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마 5:3.
- A.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겸손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즉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이 비워지고, 옛 시대에 속한 옛 것들을 붙들지 않고 새 것들, 즉 천국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옛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 비교 눅 6:20.
 - B. 천국을 알고 소유하려면, 우리의 영이 가난해지고 비워지며 짐이 내려져야 한다 — 비교 마 19:13-15.
 - C.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천국의 실제 안에 있고, 장래 왕국 시대에는 천국의 출현에 공동 참여할 것이다.
 - D.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며 우리가 아무 것도 갖지 않았고 아무 것도 모르며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갈 6:3, 요 15:5 하, 사 57:15, 66:1-2.
 - 1.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것들과 교회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자원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 — 시 51:12.
 - 2.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기쁨의 영과 지혜와 이해력의 영과 모략과 권능의 영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고 경외하는 영을 체험한다 — 히 1:9, 롬 14:17, 사 11:2-3.
 - E. 모든 영적인 진보는 사람의 배고픔, 즉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비워지는 것에 달려 있다 — 눅 1:53, 비교 시 81:10.
 - 1.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풍족한 것, 과거에 속한 것들로 만족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 빌 3:13.
 - 2. 영적 침체는 자신의 영적인 부족에 대해 냉담한 것의 결과이다. 모든 실패와 쇠퇴는 스스로 만족한 것의 결과이다 — 신 4:25, 각주 1.
 - a.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불만족을 느껴야 하며 더 좋은 영적 상태를 갖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적 진보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 b. 모든 실패와 쇠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충분히 좋다고 여기는 것에서 기인한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의 시작이다.
 - c. 쇠퇴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반면 진보는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성령께서 명하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성령에 대한 진정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3. 과거의 승리는 결코 우리의 현재의 힘이 될 수 없다 — 비교 수 7:3-4 (각주 참조), 9:14.
 - a.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이상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 비교 행 26:16, 빌 3:8 하, 10 상.

- b.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진보가 시작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에 대한 갈망을 쉽게 창조하실 수 있다 — 비교 대하 20:12.
 - c.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 속을 더 깊이 파내시어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더 채우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 비교 롬 8:28-29.
4.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규칙이다. 영적 진보는 계속적으로 비워내고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것에 속한 문제이다 — 왕하 4:1-6.
- a. 기름은 집에서 문을 닫고 부어야 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성령과 혼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왕하 4:4, 마 6:6.
 - b. 기름이 멈춘 이유는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왕하 4:6.
 - (1) 만일 우리가 무제한적인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무제한적으로 채우시는 분배를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받는 것의 여부는 우리가 빈 그릇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을 위한 어떤 여지를 가지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한 곳을 우리가 제공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2)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이 파내시고 우리 안에서 빈 공간을 더 많이 창조하시도록 구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도록 해야 한다.
 - c. 우리가 비우는 것은 계속적이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실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만을 구하기 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한다. 왜냐하면 충만은 전적으로 성령의 책임인 반면에 비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II.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4.

- A. 세상의 전체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부정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욕당하고, 그리스도는 배척되고, 성령은 방해받으시고, 교회는 황폐하게 되고, 자아는 부패되어 온 세상이 악하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신다.
- B.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따라 애통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보상으로 받음으로써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볼 것이다.

III.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5.

- A.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 B. 우리가 온유하여 세상의 반대를 이 시대에서 기꺼이 당한다면, 우리는 오는 시대에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 히 2:5-8, 눅 19:17, 19, 마 11:28-30, 민 12:3.

IV.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6.

- A. 이 뛰어난 의는 우리가 살아낸 그리스도 자신이다 — 빌 3:9.
- B. 우리는 이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하며, 이런 의를 갈구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갈구하는 바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 마 5:10, 20.

V. “공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7.

- A. 의로운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공홀히 여기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 B.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홀히 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홀을 베푸실 것인데(딤후 1:16, 18), 특히 그분의 심판대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약 2:12-13).

VI.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8.

- A.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자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고 주님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다 — 마 13:19-23.
- B.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목적이 단일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을 위한 것이다 — 고전 10:31.
- C.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 1.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신격이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 고후 3:18.
 - 2. 우리가 하나님을 더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증오한다 — 욥 42:5-6.
 - 3. 만일 우리가 주님을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일들이 쓰레기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빌 3:7-8, 비교 렘 15:19.
 - 4. 영적 진보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요소의 증가이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강탈하는 것들의 감소이다 — 딤후 4:15, 골 2:19.
 - a. 단 하나의 물건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공간을 강탈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 비교 딤후 3:2, 4, 막 12:30, 잠 4:23.
 - b. 우리는 반드시 순수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점유되지 말아야 한다 — 마 13:19-23.
 - c. 우리의 영적 진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돌이켜졌는가에 달려 있다 — 마 4:17, 고후 3:16, 비교 왕하 23:25.
 - d.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있을수록 더욱더 순수한 사람이 된다 — 시 12:6, 119:140, 요 17:17.

VII.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9.

- A. 사탄은 반역하는 자로서 모든 반역을 선동하는 자이다. 천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히 12:14.
- B. 우리 아버지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며(롬 15:33, 16:20)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화평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화평의 본성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표현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VIII.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10.

- A.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고(요일 5:19) 불의로 가득하다. 우리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 B. 천국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IX.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여러분을 반대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보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신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 5:11-12.

- A. 우리가 왕국의 영적 본성 안에서 왕국의 하늘의 속성을 지닌 원칙들에 따라 천국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주로 전통적인 종교적 관념들에 붙잡힌 종교인들에게서 비난과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다 — 행 5:41, 13:45, 50, 고후 6:8, 롬 3:8.
- B. 우리가 새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이러한 박해의 원인이다 — 비교 행 13:50-52.
- C. 그 이름, 곧 사람들이 모욕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위해 모욕받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욕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해 모욕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 — 행 5:41.